OTT 리뷰 〈1〉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제 콘텐츠의 주요 무대는 극장이나 TV가 아닌 OTT다.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부터 시간이 지나 다시 주목받는 역주행 작품까지. 'OTT 리뷰'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국내외 주요 OTT 플랫폼에서 상영 중인 영화·드라마·예능을 소개하며, 지금 가장 뜨거운 콘텐츠의 흐름을 짚어본다.

'K팝 퇴마' 악귀 잡는 무당 걸그룹에 빠지다

민화 작호도에서 모티브를 얻은 캐릭터 '더피'와 '서씨'

한국 배경 애니메이션 글로벌 열풍
넷플릭스 영화 소니 픽처스 제작
트와이스·테디·이병헌·안효섭 참여
공개 4일 만에 41개국 영화부문 1위

K팝을 소재로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작품 속 아이돌 '헌트릭스'(위쪽)와 '사자보이즈'의 모습. 〈넷플릭스 제공〉

'K팝 덕후'의 상상이 빚어낸 한국형 오컬트 판타지. 무대 위에서 빛나는 K팝 아이돌이 사실은 악귀로부터 팬들을 지키는 무당이었다면? 무대 밖에선 김밥과 라면을 먹고, 몸이 허하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는 모습. 낯익은 한국의 풍경이 기발한 상상력과 맞물리며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이 작품은 일본계 기업 소니 픽처스가 넷플릭스 미국 자본으로 제작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대와 이야기는 철저하게 한국적이다. 연출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펠한스가 맡았고, K팝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이 OST 제작을 주도했다.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OST에 참여했고, 배우 이병헌과 안효섭이 영어 더빙으로 목소리를 더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3인조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있다. 탄탄한 보컬로 팀을 이끄는 리더 루미, 길쭉한 팔다리로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 메인댄서 미라, 귀여운 외모와 반전 실력이 빛나는 메인래퍼 조이까지. 이들은 글로벌 팬덤을 거느린 K팝 스타지만, 사실은 퇴마사라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온 악령 귀마는 헌트릭스에 맞서기 위해 저승사자들을 보이그룹으로 만들어 인간 세계로 보낸다. 그렇게 탄생한 5인조 '사자보이즈'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을 앞세워 단숨에 팬들을 사로잡고, 헌트릭스를 위협한다.

작품은 지난달 20일 공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OTT 순위 집계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공개 4일 만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프랑스·독일·인도·이탈리아 등 41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OST도 인기를 끌며, 사자보이즈의 'Your Idol'과 헌트릭스의 'Golden'은 지난 2일 기준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에 각각 77위, 81위로 진입했다.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영미권과 유럽권 시청자들까지 매료된 결과다.

기본 설정 자체는 낯설지 않다. 아이돌이 사실은 히어로였다는 설정은 기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그럼에도 이번 작품이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핵심은 치밀할 정도로 철저한 한국화다. 매기 강 감독은 이민 전 한국에서 겪은 일상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섬세한 디테일을 구현해냈다.

헌트릭스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은 무당을 연상케 한다. 악귀를 물리쳤던 무당의 현대적 모습이 바로 아이돌이라는 설정이다. 이들은 허리춤에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를 차고, 조선의 주술적 도구 '사인검', 가야의 '곡도', 무당이 굿에서 사용하는 '신칼' 등을 무기로 삼는다. 대대로 이어진 '선대 무당 아이돌'의 모습은 김시스터즈나 SES를 떠오르게 한다.

작품 속 마스코트인 전령 '더피(Derpy)'와 '서씨(Sussie)'는 민화 '작호도'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고 마루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찜질방에서 양머리 수건을 쓰고 피로를 푸는 장면, 패딩·가디건·반팔 티셔츠가 공존하는 거리 풍경까지. 억지스러운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와 정서가 생생하게 녹아들어 있다.

한국 시청자들은 익숙한 풍경을 발견하며 반가워하고, 해외 K팝 팬들은 동경하던 아이돌 문화와 한국적 요소가 결합된 세계관에 매료된다. 전통 문화와 K팝, 무속과 오컬트,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며 새로운 한국형 판타지의 가능성을 넓혀준다.

넷플릭스 역시 흥행을 예측하지 못한 듯, 공개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제작진용으로만 만들었던 굿즈도 팬들의 요청으로 상품화했다.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인기의 본질은 외국인이 상상한 환상적 한국이 아니라 '한국인이 기억하는 한국'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글로벌 팬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한국의 일상에 공감하고 반가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토니상을 수상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도 맞닿아 있다. 꾸며진 한류가 아니라, 일상에서 피어난 자연스러운 한국적 콘텐츠가 글로벌 팬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K팝을 넘어 K푸드, K무속까지 확장된 세계.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한국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통부터 창작까지 다채로운 민화 한자리에

민화마루 창립회원전…12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민화로 통하다'.

민화는 조선 시대 무명 화가들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기법으로 그린 회화를 일컫는다. 우리 정서와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바람이 친근하게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민화는 일반 민중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예술작품으로 평가된다.

전통 민화부터 창작 민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민화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대 초반부터 8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들이 민화를 모티브로 창립회원전을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회원부터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민화마루(회장 김일남) 창립회원전이 오는 12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민화로 통하다'를 주제로 11명 회원들이 61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자연의 색이 발현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감상할 수 있다.

최영아의 '태평성시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8폭 병풍 가운데 4폭과 5폭의 장면을 모사한 작품이다. 번창한 상점들과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약 2120명 인물이 등장하는 성 안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렸다. 상업·수공업·건설·농경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수정 작 '창Ⅲ'

이호준 작 '연화도'

이수정의 '창Ⅲ'은 커튼 너머 스며드는 햇살과 식물의 고요한 숨결, 머물다 가는 새의 실루엣을 구현했다. 노연미의 '미(美)'는 호피 무늬와 항아리, 나비 등 화려한 배경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이호준의 '연화도'는 전통 민화 기법에 화제를 넣은 작품이다. 연화도에 잘 등장하지 않는 물총새를 넣은 점이 신선하며 날갯짓의 섬세한 터치가 동적인 느낌을 준다.

김일남 회장은 "'꽃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직 화려한 꽃망울로 그 진수를 드러낸다'는 말처럼 민화마루 회원들도 오직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각각의 감성과 관점으로 그려낸 오묘한 민화의 세계를 관람객들이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는 18~19일 북구문화센터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를 선보인다. 발레 클래스의 한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쉽고 깊게 만나는 시간 '해설이 있는 발레'

광주시립발레단, 18~19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수준 높은 발레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가 오는 18~19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발레 입문자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공연은 조가영 부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 발레 클래스 시연과 갈라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공연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Scene1)에서는 '발레 클래스'를 선보인다.

박상철 시립발레단 지도위원이 발레 마스터로 참여해 무용수들의 훈련 과정을 시연하고, 발레단의 연습실 풍경을 무대 위로 옮긴다. 무용수들이 매일 반복하는 기본 훈련이 어떻게 무대 위의 완성도 높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줄 예정이다.

두 번째 장(Scene2)에서는 발레 갈라 무대가 펼쳐진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시민사회의 태동을 그린 '파리의 불꽃', 열정적인 안무와 화려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세헤라자데(Scherazade)', 바이런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발레 '해적' 중 삼중무(그랑 파드 트루와)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이번 무대는 발레단의 일상과 예술적 정수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용수들의 숨은 노력과 다채로운 작품 세계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네이버예약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